

파견기간	1학기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
파견국가	미국		소 속	화학생물공학부
파견대학	Univeristy of Texas at Austin		성 명	김지원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평소 미국 대학원 유학에 관심이 있어 교환학생을 통해 미국에서의 연구실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유학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싶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교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이하 UT)으로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대학교입니다. 오스틴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물가가 싸고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UT는 제가 전공하는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순위에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비자는 교환학생 파견교 측에서 DS-2019를 보내준 뒤 신청할 수 있었으며, 제가 지원할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J1 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 비자 면접이 면제 되었습니다. DS-2019를 받기 위해서는 UT에서 요구하는 myIO, myStatus 등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들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UT에서 Admission letter와 함께 링크와 상세 절차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교환학생 지원 시 사용한 메일과 학교에 등록한 메일이 달라 (snu 메일과 개인 gmail)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UT에서도 기관, 담당자마다 연결시켜놓은 이메일이 다른지 메일이 두 계정에 다르게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락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처럼 2개 이상의 메일을 서류에 넣은 경우에는 모든 메일을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의료

출국 이전에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당시 저는 만 22세가 되지 못해서 서울대학교 보건소에서 Meningococcal

(bacterial meningitis) vaccine을 맞았습니다.

3) 숙소

UT로 파견되었던 다른 분들의 수학 보고서를 통해 co-op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 co-op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Co-op의 경우 자리가 빨리 찰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west campus에 위치한 Halstead라는 Super co-op에 거주하였습니다. Halstead(4-5층), Nueces(3층, 아파트형), Laurel(1-2층)은 모두 하나의 건물에 있으며, 이 건물이 오스틴에 위치한 College Houses 계열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가장 깨끗한 편입니다. 교환학생들은 주로 Super co-op에 거주하는 것 같고, 타 co-op에 비해 파티가 조금 적고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shared bath인 single room에 거주하였습니다. Co-op의 방들은 모두 크기와 조건이 다릅니다. 열리는 창문의 유무, 방 안에 있는 세면대의 유무, 공용 화장실인지, 방 크기 등등이 모두 다르지만 방 배정은 랜덤으로 되며, 일찍 입주하는 경우 입주 당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임의로 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co-op에서 가장 작은 방에 거주하였으며, 가장 작은 방의 경우 10% discount가 있어 나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IV. 학업 및 현지 생활 안내

1) 학업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서울대학교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수업이나 시험 난이도는 서울대학교 수업들이 훨씬 더 높게 느껴졌습니다. 난이도가 낮고 대부분 오픈북 시험인 대신 시험이나 과제의 수가 많은 편이라 꾸준히 성실하게 과제만 제출하면 적당히 성적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CHE 379 Advanced Polymer Synthesis

- 화학과 대학생, 대학원생, 화학공학과 대학생, 대학원생이 함께 듣는 수업으로 난이도가 꽤 높았음.
-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배우는 고분자 화학 내용과 거의 유사함.
- 과제 9회, 중간고사 3회, 기말 발표 1회, 퀴즈 3회
- 팀프로젝트로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직접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는 것이

CHE 377K Undergraduate Research Project

- 1, 2, 3학점 중 선택 가능
- 선택한 학점 * 3시간 만큼 연구에 참여해야 함
(ex. 3학점 수업의 경우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연구실에 출근해야 함)

- 학기 말에 교수님께 research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학과마다 다르지만 chemical engineering의 경우 모두 poster presentation을 진행해야 함

ME 359 Materials Selection

- Mechanical engineering 과목으로 수업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음.
- 서울대학교 재료역학개론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실제 재료들에 적용하는 수업이었음.

CMS 315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ory

- UT에서 괜찮은 교양으로 알려진 수업
- 인간관계심리학과 비슷한 느낌의 교양 수업

AET 310 Foundations of Creative Coding

- 코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수업
- 매주 과제가 1개씩 있었으나,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 수업 때 배운 내용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음
- 코딩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잘 따라갈 수 있으며,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코딩에 재미를 붙이기에도 좋은 수업인 것 같음

2) 연구실 인턴

저는 학기 중에 undergraduate research project를 통해 학부 인턴을 하다가 방학 때도 조금 더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서 비자를 연장하여 연구실 인턴을 계속하였습니다. J1 비자를 통해서 인턴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학교에 J1 비자 학생들을 위한 Academic training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를 통해 연구실 인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0/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3) 현지 생활

저는 주로 한국에서 같이 교환학생을 간 사람들과 UT에서 새로 들어간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춤 동아리여서 함께 연습하는 시간도 많고 행사도 많아서 방학 때까지도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동아리다 보니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간 동아리의 경우 오디션과 면접을 봐야했고 신입 부원을 3명밖에 뽑지 않아 초기에 지원하지 말까도 고민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교환학생 생

활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동아리에 들어간 것인 것 같습니다.

II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는데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혼자 독립해서 살아보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진로 결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자 다른 이유로 교환학생을 온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동안 다 하지 못한 것도 많고 아쉬운 점도 남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의미 있는 7개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